



성남시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희망을 심읍시다!

소명을 가진 의료인은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저와 성남시 공직자들 역시 시민 여러분을 지키고 공동체를 위로하는 공직자로서의 소명을
매일 매시간 떠올리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하여 희망을 품으실 수 있게...

바이러스로 인한 대내외 환경은 차디찬 겨울이지만 봄은, 그래도 옵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심읍시다.
성남시가 함께하겠습니다.

성남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우유미

성남시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코로나19 대응 특별판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Play 스토어'에서
'비전성남' 앱을 무료로 다운받으면
모바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남시 공식 SNS

- 페이스북 facebook.com/seongnamdiary
- 블로그 seongnamdiary.com
- 트위터 twitter.com/seongnamcity
- 유튜브 youtube.com/user/sndiary
- 인스타그램 instagram.com/seongnamsi

발행 성남시
편집 공보관
주소 13437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콜센터 성남시콜센터 1577·3100
홈페이지 snvision.seongnam.go.kr



성남시장,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시민경제 위해 1,146억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

안녕하세요. 성남시장 은수미입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대한 용감하고 민주적인 대처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남시는 코로나19 '조기 극복'만이 아니라 코로나19 '이후'를 대처하기 위해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을 마련, 시민긴급지원 및 시민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은 다음의 세 가지 원칙에 따릅니다.

첫째,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적 거리는 좁히겠습니다.

감염병의 위협으로 자유와 존엄이 가장 먼저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2인 3각 협력체제로 수평적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경기부양과 서민 생활지원 기조를 지원하는 한편, 한시적인 소득지원에 좀 더 집중해 지자체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단 한 사람의 성남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연결을 강화하고 디지털 시대 새로운 공동체의 미래를 모색하겠습니다.

함께 살기와 각자도생 갈림길에서 서로 돕고자 하는

의지, 연결되고 소속감을 느끼려는 시민 여러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정책의 다섯 가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기 가구 및 개인에 대한 긴급 지원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총 16만8,171가구에 총 673억 원의 긴급 생활안전 자금을 직접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휴·폐업한 분들, 실직자,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대리기사 등을 포함합니다.

이에 필요한 지원금은 전액 성남사랑상품권(모바일)이나 직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성남시는 코로나19 '조기 극복'만이 아니라 코로나19 '이후'를 대처하기 위해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을 마련, 시민긴급지원 및 시민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택시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법인택시 기사님 1,500여 분께 월 10만 원씩 총 4개월간 6억 원의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성남시는 휴업수당 지급안내 등 중앙정부의 서민생활지원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위기 자영업 긴급 지원입니다.

우선 확진자 방문으로 휴·폐업한 영업장 100개소에 1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지원합니다.(이는 후원금 또는 별도예산으로 충당합니다.)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에 동참해 주신 52명의 건물주, 총 140개 점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성남시는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분들께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유재산인 중앙 지하상가와 하대원공설시장, 모란민속5일장 내 총 1,133개 점포 임대료를 2월부터 6개월간 60~77%까지 인하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특례보증대상자에게 연 2% 이내 2년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사업을 진행합니다(21억).

후원 장기화로 가정양육수당 신청이 증가하면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597개소 어린이집에는 개소당 300만 원씩 총 18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포함해 일반 가정 전 세대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30~50%,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중앙정부 방침이나 조례개정 검토를 통해 총 146억 원을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총 303억5천만 원을 투입한 긴급 돌봄가정 및 일자리 지원입니다.

성남시는 0세에서 만 6세만이 아니라, 만 7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 5만893명에게도 월 10만 원씩 4개월간 "아동양육 긴급돌봄" 비용을 지급합니다. 지금부터 4월까지 신청자를 받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총 204억을 투입할 것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정책

사업명	기준	지원액	지원규모	소요예산	지급방법	추진시기	
생계비 긴급지원	재난연대 안전자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수 기준 30만~50만 원	168,171가구	673억 원	상품권	4월
	코로나19 휴·폐업 영업장 영업손실 보상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폐업 영업장	100만 원	100개소	1억 원	현금, 상품권	4월(성금)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22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1,085대)	4개월간 월 10만 원	1,500명	6억 원	상품권	4월
	어린이집 장기휴원 운영비	가정·민간·협동(국공립, 직장, 3인 이하 제외)	개소당 300만 원(2,24~4.5 휴원: 1.5월)	597개소	18억 원	현금	4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소상공인	연 2% 이내(2년) ·특례보증 13억⇒30억 ·이자차액지원 3.6억⇒7.7억	300억 원	21억 원	금융보증 이자지원	4월
	"착한임대료" 인하 임대인 재산세 감면	임대료 인하 건물주	최대 100%	건물주	미추정	재산세 감면	7월
	공유재산 전통시장 임대료 인하	중앙지하상가, 하대원공설시장, 모란민속5일장	60~77%(2~7월: 6개월)	1,133점포	12억 원	임대료 감면	기시행
	상하수도 요금 감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일반가정 등	5개월간 30~50%	성남시민	146억 원	요금감면	4~9월
돌봄 및 일자리 확대	아동양육 긴급돌봄	만 7~12세	4개월간 월 10만 원	50,893명	204억 원	상품권	4월
	어르신 소일거리사업 확대	만 65세 이상(경로당 환경지킴이)	1인 13만 원(월 12시간)	800명	10억 원	상품권	5~12월
	희망소득 인력 지원	동별 6명	2개월간 월 214만 원	300명	12억 원	현금, 상품권	4~5월
	마스크판매 약국 지원	청년인턴	74만 원	50명	0.5억 원	현금	4월~
	산지정화사업	청·장년	4개월간 1인 월 210만 원	200명	17억 원	현금	4~7월
	공공시설물 소독(방역)사업	동별 20명	4개월간 1인 월 150만 원	1,000명	60억 원	현금	4~7월
지역경제 활성화	성남사랑 상품권 10% 할인판매	5월부터 1,000억 발행분 소진 시까지	1,100억 ⇒ 2,100억(할인: 6% ⇒ 10%)	1인 구매 월 100만 원 ⇒50만 원	125억 원	상품권	4~8월
	공공사업 조기발주	일물공원매입, 금곡공원국민체육센터	토지매입 500억, 체육센터 41억	공공시설	541억 원	현금	상반기
	공공자금 신속집행	상반기 중 조기집행	물품, 공사계약 등	시·구·동 전 부서	7,460억 원	현금	상반기

또한 총 99억5천만 원으로 일자리 사업을 시작합니다.

연대기금 지원에 필요한 인력 300명(50개동 6명씩) 및 공적 마스크 판매 약국을 지원하기 위한 50명 청년인턴(12.5억), 산지녹화와 지역방역 등 1,200명 공공일자리 추진(77억), 그리고 800명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10억)이 해당합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성남사랑상품권 1,000억 원을 10% 특별할인 판매하겠습니다.

아울러 물품 구입과 공사발주 시 지역 업체를 이용하고, 일자리를 비롯한 공원일몰제 대상 토지 매입비(500억 원) 및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41억 원)를 포함한 프로젝트를 조기에 발주하겠습니다. 상반기 내 7,460억 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생활SOC 사업을 적극 추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위로와 치유의 공동체 강화입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감,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에 정서적 건강의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심리상담 및 치유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 2월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3개구 보건소에서 시작한 재난 심리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소통과 참여의 '재난극복 플랫폼'을 만들어 심한장애인의 돌봄단절이나 독거노인가구의 위기 등을 사전에 모니터링해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성남시민의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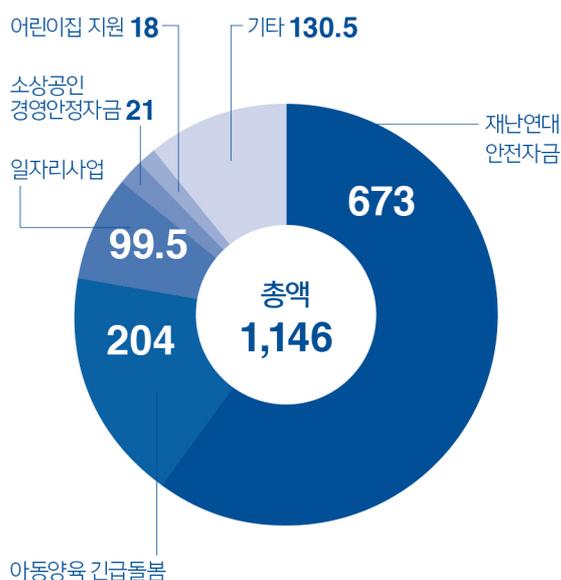
적 연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드론, 빅데이터 등 성남이 보유한 디지털 혁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결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입니다.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에 필요한 예산은 재난관리기금 470억 원, 순세계잉여금 350억 원, 예비비 100억 원, 그리고 올해 예산 중 직원들의 연수비용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을 과감히 조정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정책과 예산편성을 위한 긴급 추경을 성남시의회 및 관계기관과 즉각 협의하겠습니다.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분배안 (단위, 억원)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민생안정 대책들을 계속 강구하고 의회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고 재난극복 플랫폼에 올라오는 의견들을 반영해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성남시와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이라는 전무후무한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모든 위기는 기회이듯 감염병으로부터 위협받는 자유와 인권, 존엄과 연대를 지켜낸다면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강한 민주주의 사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코로나 극복의 전 세계적 모범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층 더 성숙한 시민의식과 참여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이미 시민 여러분은 이기고 있으며, 저와 3천여 명 공직자는 언제나 위대한 시민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존엄과 인권을 살려내겠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존경을 담아 약속합니다. 성남시는 오직 시민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성남시, 코로나19 총력대응 중

1월 20일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발병 이후, 성남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 중이다. 3월 초 지역 내 집단 감염이 발생했지만 시는 신속히 대책 방안을 마련해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에 매진 중이다.

코로나19 전국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던 2월 25일 성남시에도 코로나19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이후 분당제생병원과 양지동 소재 은혜의 강 교회에 집단감염이 발생해, 3월 23일 0시 현재 성남시 관리 확진환자는 99명(누적), 의사환자 15명, 조사대상 유증상자 27명, 자가격리 600명, 능동감시 대상자 90명이다.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의 자택과 주변 지역을 긴급 방역한다. 확진자 가족은 검체 채취 후 검사를 의뢰하고 자가격리 조치한다. 역학조사반이 확진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접촉자를 파악하면 시는 즉시 방역, 시설 폐쇄, 접촉자 검사와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관련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식 SNS를 통해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알리고 있다.

3월 5일 분당제생병원 감염이 발생하자 시는 즉시 이동형 음압계, 방호복,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대책반을 구성해 대응 중이다. 18일 지원대책반에 투입된 분당구보건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분당구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잠정 폐쇄됐고,

●●●
모두가 위험에 노출된 코로나19 사태,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혜로운 판단과 행동으로 함께 대처한다면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할 것이다.**

보건소 일반업무는 20일 재개됐다. 지역 내 의심환자는 수정·중원구보건소, 성남시의료원 등 가까운 선별진료소로 안내한다.

분당서울대병원은 3월 9일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직원을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격리 조치한 뒤, 즉각 해당 센터를 방역하고 접촉자 검체 검사를 실시했다. 접촉자 모두 음성판정을 받으면서 감염병 원내 확산이 차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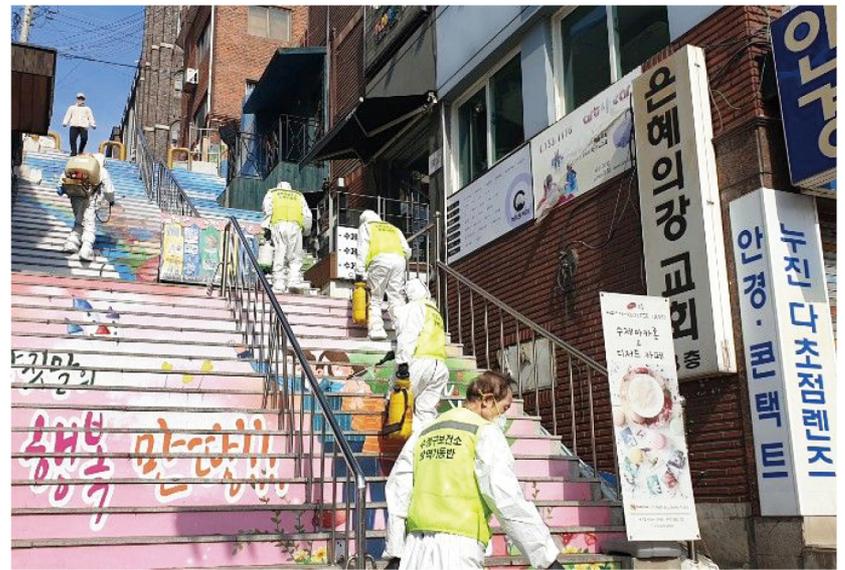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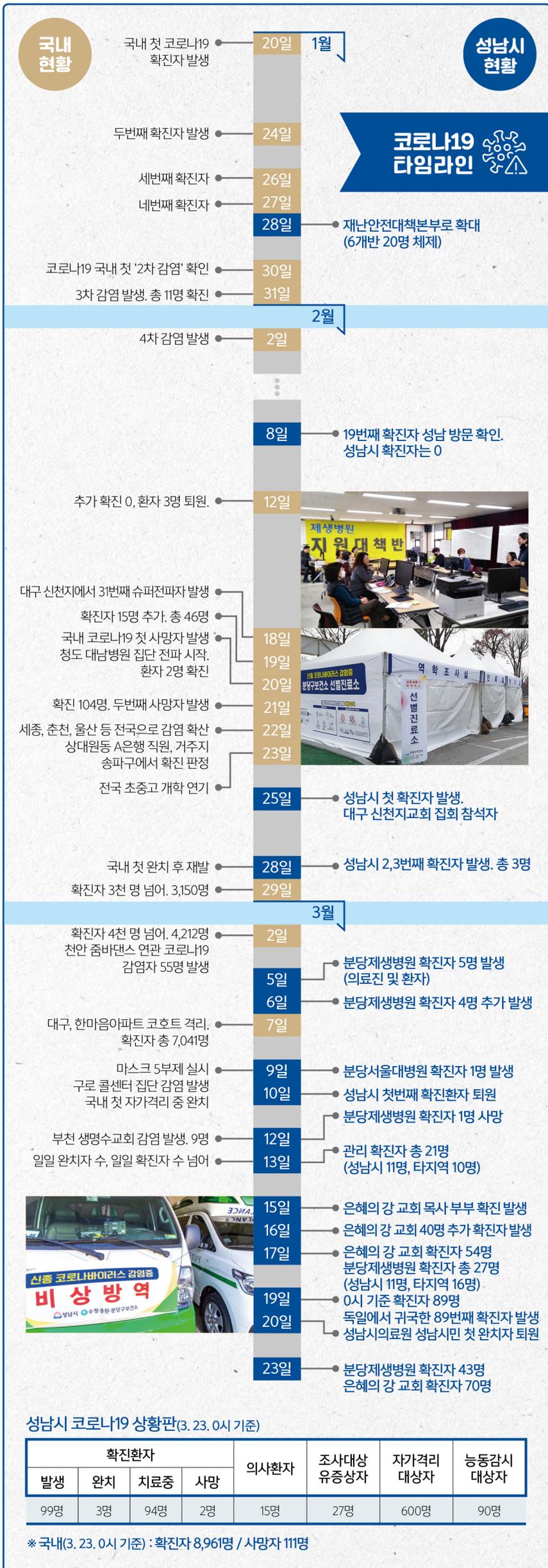
은혜의 강 신도 135명 전수 조사 결과 양성 54명, 음성 81명이고, 23일까지 관련 확진자는 70명이다. 성남시는 은혜의 강 교회 시설을 폐쇄조치하고, 교회와 주변 일대, 양지동과 은행동 전역에 방역을 실시했다. 상황총괄반 등 6팀 28명의 대책본부를 만들

고, 경기도 역학조사관과 성남시 공무원 100여 명으로 합동특별역학 조사반을 꾸려 가동 중이다.

역학조사반은 질병관리본부 지휘 하에 확진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확인 등의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 역학조사관은 1명당 확진자 2~4명을 전담한다. 인력부족,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공개 기준, 질병관리본부의 결정 등으로 확진자의 동선 공개가 늦어지기도 한다.

성남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3.9)에 따라 확진환자의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동경로 공개시간은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14)에 따라 증상발생 또는 검체 채취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한다.

너무나 엄중한 시기, 시는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펼치고 시민들은 불안과 고통을 애써 참아가며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단체와 개인의 안일한 생각이 혼란을 더했다. 모두가 위험에 노출된 코로나19 사태,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혜로운 판단과 행동으로 함께 대처한다면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할 것이다.



“종교예배 등 집단 집회를 금지해 주십시오”

수정구 양지동 소재 ‘은혜의 강 교회’에서 신도 40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3월 16일 오전. 은수미 성남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집단 감염 대책에 이어 시민들에게 세 가지를 간곡히 당부했다.

첫째, 은혜의 강 교회 신도나 가족 중 미열 등 증상이 있는 분은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둘째,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성남시 관내 모든 종교 기관 및 단체는 예배 등 집단 집회를 금지해 주십시오.

셋째, 시민들은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성남시는 곧바로 성남시기독교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 예배 자제, 온라인 예배 대체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적극 협조를 부탁했다. 이에 성남시기독교연합회는 ‘연합회 소속 모든 교회는 향후 3주간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지역교회 방역을 실시하겠다’는 공동협력문을 발표했다. 시는 2월 24일에도 관내 4개 종교단체 지도자들을 직접 만나 사람이 모이는 종교행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시는 1월 31일부터 수차례 공문을 발송해 집회 자제를 요청했다. 관내 종교단체는 2월 말부터 예배, 미사, 법회 중단 및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등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하는 가운데 일부 중소형교회들이 주말 예배를 여전히 실시해왔다.

성남시는 3월 1일부터 기독교 주말 예배 현장을 직접 방문해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외부 소독 실시 등 예방수칙 준수와 집합 예배 자제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3월 14일과 15일, 시 공무원 130여 명이 현장을 긴급 점검해 주말 집합 예배를 실시하는 중소형교회 225곳에 재차 권고하고, 22일에는 390여 개소를 현장 방문해 강력하게 권고했다.

3월 21일 중앙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15일간 운영 중단 및 준수 사항 이행을 강력히 권고했다. 위반 시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고, 행정명령 위반 시 시설폐쇄,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모든 조치를 적극 취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남시 대응



사각지대 없는 코로나19 방역

총 19개 기관으로 구성된 민·관·군 합동방역단은 관내 총 5,539개소 방역을 실시했다. 합동방역단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 동별 지역방역단은 관내 위생 취약 지역과 시설물, 수정·중원·분당구 각 보건소는 확진자 동선과 민원 요청 지역을 집중방역하고 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은혜의 강 교회와 양지동·은행동 전역도 긴급방역을 마쳤다. 관내 행정복지센터 50곳은 자가 방역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방역 장비를 대여하고 있다.

관내 버스와 택시 운수업체는 1일 1회 소독,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전 차량 승객용 손소독제를 비치해 **감염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야탑역 광장에 설치된 손세정대(수도시설)는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운영한다. **시청사도 모든 출입자 발열체크 및 출입증 발급 등 방역을 강화했다.**



인공지능으로 증상 상담

시는 관내 대표기업 네이버(주)와 업무협약을 맺고, 코로나19 능동감시자 대상 인공지능 시스템 클로바 케어콜(Clova CareCall) 상담서비스를 3월 9일 국내 최초로 시작했다. 케어콜 서비스는 1일 2회 자동 전화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상담결과를 리포트한다. 3월 9~18일 10일간 총 396명에게 759건 통화해 25건의 증상을 찾아냈다. **보건소는 상담 결과를 활용해 증상 이상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연계한다.**



성남시의료원, 감염병 전담병원

성남시의료원은 2월 23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동형 음압기 28대를 추가해 코로나19 확진자 병상을 3월 15일부터 86개 추가 운영하고 있다.** 음압시설을 갖춘 기존 9층 격리병동의 24개 병상에서 6·7층 각 43개 병상을 추가해 총 110개 병상에서 치료가 가능하다.

3월 23일 9시 기준 치료받은 환자는 총 72명으로 치료 중인 확진환자 58명, 완치 퇴원환자 12명, 전원 1명, 사망 1명이다. 확진환자 중 43명이 성남시 거주자다.



코로나19 외부 유입 차단

성남종합버스터미널에 설치한 드론 열화상카메라는 하차 승객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발열상태를 체크 중이다. 37.5도 이상의 발열자는 즉시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안내한다. 시는 가천대 중국 유학생 입국 후 수송부터 필요 시 자가격리를 지원하고, 지방 유입 대학생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관내 5개 대학은 개강을 연기했다.



자가격리자 임시 생활시설 마련

수정구 시흥동 소재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와도 협력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 대상자 중 **자가격리가 힘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코이카 연수센터에 92실의 임시 생활시설을 마련했다.** 가족 간 전파 등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다. 3월 19일 누적 입소 인원은 8명이다. 3월 19~20일 동안은 이란에서 귀국한 재외국민 80여 명이 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며 임시 대기했다.



성남시는 코로나19 차단 방역을 위해 가용가능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방역사각지대가 없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감염 취약계층 위생물품 지급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1월 말부터 최근까지 마스크 59만여 개, 손소독제 18만여 개를 구입해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심한장애인, 임신부, 한부모가정 등의 취약계층, 청소년, 다중이용시설, 대민 접촉이 많은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배부하고 있다.

앞으로도 마스크 50만여 개, 비접촉식 체온계 1,200여 개 등의 감염 예방물품을 감염 취약 대상과 시설에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인턴, 약국 일손 부족 해소

시는 공고를 통해 모집한 청년인턴 50명을 인력 지원을 요청한 1인 운영 약국과 일손 부족 약국 50곳에 1명씩 투입한다. 청년인턴은 3월 23일~4월 18일 약국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구매자의 대기 시간을 단축해 공적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돕는다.



신천지 관련 시설 폐쇄 및 방역

관내 신천지 관련 18개 시설은 시에서 폐쇄·방역 완료하고 폐쇄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530명의 공무원 전담반은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확보한 관내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명단을 바탕으로 이들의 감염 및 증상 여부를 3월 2일부터 10일간 매일 2회씩 모니터링하고, 유증상자는 필요한 조치를 했다.



모란민속5일장 연속 휴장 2월 24일과 29일, 3월 4일에 이어 19일, 24일도 휴장. 5차례 연속 휴장은 1962년 장이 선 이후 처음이다.



자원봉사 협력



성남시새마을부녀회, 성남시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한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는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줄 면마스크(필터교체형)를 제작 중이다. 우선 3월 중에 5천 개를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마스크 제작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성남시자원봉사센터(031-757-6223~8)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 기부함'도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54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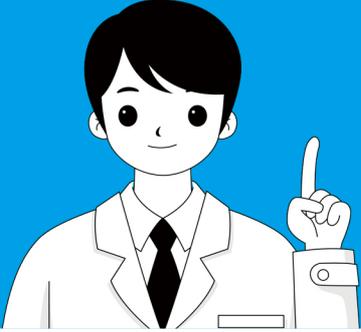
다중이용 기관·시설 전면 휴관 관내 공공도서관, 노인이용시설, 청소년수련관 등의 다중이용 기관 및 시설도 잠정 전면 휴관 중이다.



다중이용장소 집회 금지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금광1구역, 모란시장 주변, 야탑역, 세이브존 주변 등 관내 다중이용장소 15곳에서의 집회를 금지했다. 집회 금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을 근거로 내린 조치로, 어기면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코로나19 예방에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사회 확산 차단의 마지막 골든타임
감염 차단과 확산 속도를 늦추는 유일한 방안

국민 6대 행동지침



증상의심 시 병원 방문 전 관할 보건소로!

수정구보건소 031-729-3870
중원구보건소 031-729-3776~7
분당구보건소 031-729-3990



개인위생 수칙 준수해 주세요

손 씻기, 기침예절 등



“앞으로 15일, 최대한 집에서만”
(3.22~4.5)

잠시 멈춤

연기 또는 취소해 주세요

모임·외식·여행 등



매일 주변환경 소독·환기해 주세요

사무실, 집 등



외출 자제해 주세요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 아니라면



출근하지 마세요

발열·기침 증상 있으면



2m 건강거리 지켜주세요

악수 등 신체접촉 피할 것

2m



코로나19를 멈추기 위한 실천수칙

- ① 나는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연기하는 등 타인과의 만남을 자제하겠습니다.
- ② 나는 전화, 인터넷, SNS로 소통하며 지인과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하겠습니다.
- ③ 나는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로 개인 위생수칙을 늘 지키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1339

경기도 콜센터
031-120

성남시의료원 '마스크 똑바로 알고 착용하기'






- ① 마스크 착용 전에 손을 깨끗이 세정한다.
- ② 마스크 앞뒤확인 후, 얼굴 크기에 맞게 넓게 펼친다.
- ③ 끈을 귀에 걸어 위치를 고정시킨다.
- ④ 틈이 없는지 확인해 얼굴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착용한다.



QR코드로 '마스크 똑바로 알고 착용하기' 영상을 확인하세요.

성남시 '따로 또 같이' 아이디어 공모전

시민과 함께하는 코로나19 극복!

공모 주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구분	상금
참가 자격	성남시민, 공무원	채택 아이디어	성남사랑상품권 5만원
접수 기간	2020년 3월 23일 ~ 4월 1일	정책반영 아이디어	성남사랑상품권 10만원
접수 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 (www.seongnam.go.kr)	비고	채택건수 제한없음
시상	2020년 4월 20일	문의	성남시 홈페이지 참조 (☎ 031.729.2154)